

KIA 새 리드오프 김호령, 팀 타선에 불 붙일까



KIA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이 팀의 새 리드오프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KIA는 올 시즌 개막에 앞서 타선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기존 리드오프였던 박찬호와 중심타자 최형우가 이적하면서 타선 재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심타선에서는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의 대안이 있었다.

문제는 테이블세터진. 그중에서도 리드오프가 가장 큰 숙제였다.

후보군은 있으나 딱 들어맞는 인재를 찾기가 어려웠다.

1번 타자는 타선의 흐름을 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신중할 결정이 필요했다.

이때 눈에 띈 선수가 바로 김호령이다. 김호령은 시범경기 12경기에서 33타수 12안타 3타점, 타율 0.364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눈도장을 찍었다.

이미 중견수 수비에서는 리그 최상급으로 인정받는 자원이다. 오랜 시간 약점으로 꼽혔던 타격 역시 지난 시즌부터 분명한 변화를 보였다. 빠른 발까지 갖춘 만큼 조건이 가장 일치했다.

결국 지난 28일 SSG와의 개막

카스트로와 테이블세터 구성...중심타선 연결 주목 무안타에도 개막전 호수비·타격 집중력 등 돋보여

전부터 리드오프로 나서게 됐다.

개막시리즈 2연전에서 성적은 8타수 무안타. 그러나 결과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먼저 볼넷 2개를 골라내며 출루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개막전 1회초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선발투수 화이트와 8구의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냈다. 이후 나성범의 우전 안타 당시 홈플레이트를 밟아 팀의 시즌 첫 득점을 뽑아냈다. 상대 화이트는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면서 크게 흔들렸고, 5회초 팀은 5-0까지 앞서나가는 데 성공했다. 김호령은 이어 8회 2사 1·2루에서도 13구까지 승부를 펼치면서 상대 배터리를 괴롭혔다. 타석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장점인 수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KIA가 3-0으로 앞선 4회말 에러대야의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냈다. 당시 공이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중견수, 유격수, 2루수가 모두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충돌 위험까지 있었

만, 김호령은 끝까지 쫓아 아웃카운트로 연결했다. 선발투수 네일도 박수를 보낼 정도의 허슬 플레이였다.

다만 올 시즌 김호령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단순히 수비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KIA 타선은 2번 타자 카스트로를 시작으로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견고하다.

김도영과 나성범, 김선빈은 이미 검증된 타자들이다. 부상 없이 정상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언제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다. 여기에 카스트로의 초반 활약도 기대된다. 그는 2경기 동안 9타수 5안타 1홈런 2타점 타율 0.556의 호성적을 작성했다.

시즌 첫 타석부터 2루타를 터트렸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택형을 상대로 KBO리그 데뷔 첫 홈런까지 폭발시켰다. 비록 이제 시즌이 시작됐지만, OPS(출루율+장타율)가 1.600에 이를 정도로 좋은 모습을 선보였다.

결국 KIA 타선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1번 타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호령이

카스트로와 함께 출루해야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으로 이어지는 팀 타선의 파괴력이 살아난다.

김호령은 이미 지난 시즌 타석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2025시즌 105경기에서 332타수 94안타 6홈런 39타점 타율 0.283 OPS 0.793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그가 타율 0.28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었다. 타격이 살아나자 원래 강팀이던 수비 가치까지 더 크게 부각됐다.

연봉 또한 이를 증명한다.

김호령은 기존 8000만원에서 212.5% 오른 2억5000만원에 계약하며 2015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자가 됐다. 오선우에 이어 팀 내 야수 최고 인상 폭이었다. 물론 예비 FA 신분이라는 점이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시즌 보여준 확실한 성장과 가치 상승이었다.

현재 KIA가 타선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1번이 출루하고 2번 카스트로가 연결해 중심타선이 해결하는 구조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김호령이다.

리그 최고의 중견수로 꼽히는 김호령이 팀 타선까지 책임지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조선이공대, 체육팀 창단...전문체육 저변 확대 나선다

복싱·역도·태권도·합기도 광주 대학체육 활성화 노력

조선이공대학교가 체육팀을 창단에 전 문인재 육성에 나섰다.

3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조선이공대는 지난 30일 대학 컨퍼런스홀에서 복싱, 역도, 태권도, 합기도 등 4개 종목 운동부 창단식을 열고 광주 대학체육 활성화와 지역 전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발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창단식에는 운동철 광주태권도협회 회장, 장명철 광주역도연맹회장, 광범의 광주합기도협회장, 김승영 조선이공대학 생취업처장과 나승희 박준환 학부장, 엄동철 대학역도연맹 부회장, 박구 화순군청 복싱 감독 등 중목단체 관계자, 선수 및 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선수단 창단을 함께 축하했다.



조선이공대는 지난 30일 대학 컨퍼런스홀에서 복싱, 역도, 태권도, 합기도 등 4개 종목 운동부 창단식을 열고 광주 대학체육 활성화와 지역 전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창단은 대학체육과 지역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학생선수 육성과 대학체육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이공대는 앞으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4개 종목의 운동부는 조선이공대의 새로운 자선이자

광주체육의 든든한 미래"라며 "선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성장한다면 대학체육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체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웹툰 캐릭터 '틴틴팅클' 컬래버 상품 출시

KIA타이거즈가 인기 SNS 웹툰 캐릭터 '틴틴팅클'과 컬래버 상품을 출시한다.

2020년 SNS 연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SNS툰 '틴틴팅클'은 2000년대 배경의 초등학교 캐릭터인 '틴틴'과 '팅클'의 우



이번 컬래버 상품은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레플리카 유니폼 2종을 비롯해 모니터 거치인형, 멀티파우치, 추억의 옛날 놀이 세트 등이 포함된다. 추억의 옛날 놀이 세트는 공기, 향종이, 롤라곤, 딱지로 구성된 2000년대 초등학생

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유년시절을 보낸 MZ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은 오는 7일부터 온오프라인 틱스 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전남 최초의 실업 여자축구팀 강진 스완스 WFC가 지난 27일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창단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전남 첫 여자축구 실업팀 '강진 스완스 WFC' 출범

초·중·고·실업 육성 체계 구축

전남 최초의 실업 여자축구팀 강진 스완스 WFC가 최근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창단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강진 스완스 WFC는 기존 창녕 WFC가 연구지를 전남으로 이전에 출범한 팀이다. 이로써 전남은 역대 첫 실업 여자축구 팀을 보유하게 됐다.

4월 국내 최상위 여자축구 리그인 WK리그에 참가할 예정인 강진 스완스는 팀 전력도 안정적으로 갖췄다. 고려대학교 여자축구팀을 중심으로 이끈 고현호 감독을 중심으로 전형찬 코치, 맹창운 피지컬 코치, 여명용 GK 코치, 김수하 의무팀장 등 지도진이 구성됐

으며, WK리그 경험 선수들도 합류했다. 여기에 2026 AFC 여자 아시안컵 4강 진출 멤버인 손화연(FW)과 송재은(MF)이 합류하면서 창단 초기부터 경쟁력 있는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창단으로 전남 여자축구 환경도 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에는 실업 여자축구팀이 없어 지역 선수들이 성장하더라도 타지역 팀으로 이적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강진 스완스 창단으로 전남에서도 여자선수들이 최상위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유소년부터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성장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KLPGA 국내 개막전 더시에나오픈 내일 '팡파르'

이예원 개막전 2연패·10승 도전 유현조·홍정민 등 톱랭커 출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시즌이 국내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더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파 72·6586야드)에서 열리는 더시에나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1억8000만원)은 올 시즌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KLPGA 정규 투어 대회다.

앞서 지난 15일 태국 혼부리에서 끝난 리쥘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으로 막을 연 올해 KLPGA 투어는 4월부터 국내대회 일정을 치른다. 올 시즌 신설된 이번 대회에는 리쥘란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



한 임진영을 비롯해 이예원, 유현조, 홍정민 등 톱랭커들이 나선다.

임진영은 "국내 개막전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다"며 "샷감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컨디션은 좋은 편이라 지난 대회 때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국내 개막전 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하는 이예원 역시 우승 트로피를 향한 각오를 전했다.

이예원은 "지나해 국내 개막전 우승을 비롯해 국내 개막전에서 좋았던 기억이 많다. 이번 대회도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컨디션과 샷감을 올리고

있는데, 톱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신인 선수들의 출전도 눈에 띈다.

지난 시즌 KLPGA 정규투어에서 2승을 달성하며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김민솔과 2026 KLPGA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수석 양효진을 필두로 이세영, 김가희2, 김지윤2, 최정원, 성은정 등 국가대표·상비군 출신 기대주들이 신인상 경쟁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김민솔은 "국내 개막전인 만큼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크다. 큰 욕심 없이 내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다"면서 "현재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장한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랭킹 1위 박성현, 전 축구국가대표 송종국과 배우 박연수의 딸 송지아가 추천 선수로 우승을 노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